

###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지난 7월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사랑시민상 여성부문 시상 및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경제활동 분야의 본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사랑시민상의 경제활동 분야 본상을 수상한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에 김화자 한국여성발명협회 중앙본부 회장 등이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참석하여 시상하고 수상자들에게 '서울사랑시민상은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 부문)은 서울시 여성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6월 '서울사랑시민상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부문을 포함한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 건축, 토목 등 9개 부문별로 서울사랑시민상을 시상하였고, 여성 부문은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2회째 시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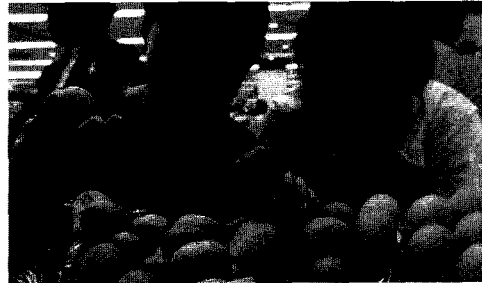
이번 수상자로는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외에도 본상 사회참여 분야에 이인복 나자렛성가정공동체 원장, 장려상 중 보육 분야에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양성평등 분야에 서울사랑의부부합창단, 건강가정 분야

하고, 그 추진 방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발명연구의 저변확대, 여성 발명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 등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간 우호적 관계 개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행사 개최, 한·중·일 친선 도모와 동북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였으며,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생활 정보

## 신선한 '달걀'을 고르려면...



일반 가정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달걀. 갖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양면에 있어서도 완벽하여 더욱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것이 신선한 달걀인지, 갈색 달걀과 흰색 달걀의 차이는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

#### 최근에 산란한 달걀이 신선하다

달걀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산란일이다. 보통 용기에 산란일과 유통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구입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산란한 달걀을 사는 것이 좋다. 달걀은 채란 다음날 공급을 하는데 입고 후 3일~7일 후에 판매하는 것이 보통. 유통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이다. 또한 껍질 전체의 결이 곱고 매끈하며 광택이 있는 달걀, 깻 때 노른자가 볼록하게 솟아있는 것이 신선하다.

#### 흰색과 갈색 달걀, 맛이나 품질 차이는 없다

갈색 달걀은 로드 아일랜드 레드종, 뉴햄프셔종 등 갈색 닭이 낳은 알이며, 흰색 달걀은 흰색 닭인 레그혼종이 낳은 알이다. 두 가지 모두 맛과 품질 차이는 없다. 70년 대 말까지는 흰색 달걀이 많았으나 2g 정도 무게가 더 나가는 갈색 달걀이 소개되면서 시판되는 달걀 중 70%에 달하고 있다. 시중에서 흰색 달걀을 찾기 힘든 이유도 그 때문이다.

## 안티 바이러스 특허,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툴을 포함한 악성코드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가 해마다 30여건씩 출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 진단과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는 '85년에 최초로 출원되었고, '95년 이후부터 활발해져 현재까지 총 2백16건이 출원됐다.

이 중 국내출원은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출원이 전체건의 80%(1백74건)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발명 8%(17건), 삼성, LG, KT 등 대기업 4%(9건), 연구소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원은 4%(8건)에 불과했다.

최근에 트렌드 마이크로사가 자사의 서버 기반 안티바이러스 특허권을 주장하며 미국,

일본, 유럽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특허소송으로 관련업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 사정권을 벗어나 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42건을 등록받는데 비해 국내 대기업과 국외 기업은 통틀어 각각 1건씩 등록 받았을 뿐이다. 현재 국내에는 악성코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치료하는 10여종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으며 대략 8백억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매시간마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관련 기업들의 특허에 관한 관심도 한층 더 늘 아질 전망이다.

## 일본 정부, 잠자고 있는 특허 되살린다

일본 정부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휴면 특허'를 매입해 사업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적재산펀드'를 만들어 특허권을 매입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찾아 잠자고 있는 특허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펀드'는 정부 산하 금융 기관인 일본 정책투자은행 주도로 금융기관·기업과 협력해 50억~60억엔(약 5백억~6백억) 규모로 창설될 전망이다. 정부투자은행은 10억엔 가량을 출연하며 다음달부터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출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은 특허나 독자적인 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특허가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우선 특허를 사업화할 자금이 부족하고 독자기술을 곧바로 상품화로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드를 만들어 휴면특허 이용권을 사들인 다음 해당 기술 전문가나 펀드매니저 등에게 조언을 받아 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특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신설해 장래 주식 상장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믿음의 기업 인성내츄럴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앞장서온 글로벌기업, 인성내츄럴-인성내츄럴은 천연의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전문회사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리더자를 양성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늘 깨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앞선 기업, 인성내츄럴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건강을 전담하는 믿음의 기업  
**(株)인성내츄럴**  
<http://www.isn21.com.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11 한진빌딩 T.080-563-8509

#### ■내츄럴 기능성 식품

- 인성헬스츄모: 영양공급, 신진대사
- 인성프로폴리스: 건강 증진, 영양공급
- 인성알로에분말: 장운동, 장기능 도움, 면역력증강
- 인성감마리놀렌산: 콜레스테롤 및 혈행의 개선
- 인성카라본글루코사민: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
- 인성클로렐라: 체질개선, 건강증진
- 인성홍삼인케어: 원기회복, 지양강장
- 인성비타민: 항산화작용
- 인성오기: 건강증진, 신진대사 원활
- 인성보리슬림다이어트골드: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

#### ■내츄럴 기능성 화장품

- 인성메디아화장품: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보호 (비타민, 식물성콜라겐 등 함유)
- 인성녹두팩: 녹두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만들
- 인성비디크림: 미네랄, 녹두, 인삼, 해초 추출물 등 함유
- 인성비누: 각종 자연 피부보호제 첨가

#### ■어린이 상품

- 인성큐: 성장 및 건강증진 도움

#### ■내츄럴 기능성 치약

- 인성폴리스: 항생, 항균, 소염작용, 충치예방

# 특허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정 체결

특허청(청장 김중갑)은 지난 7월 8일, 국내섬유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사장 윤성광)과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허청은 5만여건 이상의 섬유관련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심사관이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섬유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섬유관련 학술정보 및 다양한 시험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섬유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 기관은 상호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통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특허청에 최신섬유기술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자료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며, 발간도서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섬유기술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공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특허실무 및 지적재산권관련 교육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및 중소기업체 종사자에 실시하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의 섬유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textopia.or.kr>)에 중소기업체를 위한 특허 출원관련 상담메뉴를 신설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심사에 필요한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중소기업체는 연구개발시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동향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계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연구 및 투자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상호 윈윈(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 졸업장과 디자인 등록증을 함께 받는다!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3만 여명의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졸업전시회에 발표하는 졸업작품 디자인을 특허청에 무료로 출원하여 졸업식장에서 졸업장과 함께 디자인 등록증을 수여받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중·고생 및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1~3년분) 전액이 면제되고 있는데 특허청은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디자인 등록증 수여도 계획했다.

특허청(특허청장 김중갑)과 한국산업디자인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8일, 공동으로 '디자인 지식재산권 워크숍 2005'를 개최, '특허청-한국산업디자인협회간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이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국기업 R&D 투자비용, 한국정부에서 100% 제공

앞으로 첨단업종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면 시설비, 인건비 등 투자비의 최대 100%를 한국 정부에서 제공받는다. 또 자동차 부품, 반도체·LCD, 바이오 등 5대 전략업종이 선정돼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월 19일 외국인투자유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단순히 규모보다 한국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질

적인 기여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했으며 2분기의 경우 25%나 줄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유치도 용이한 자동차 부품, 반도체·LCD, 바이오, 유통물류, 문화관광 등 5대 업종을 범정부적인 유치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업종으로 선정,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투자 담당관을 임명하고, 투자 가능성이 높은 1백대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업종의 R&D 센터가 유치되면 종전에는 투자비의 20%를 현금으로 지원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최대 10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국내에 R&D 센터를 세우면 토지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비의 최대 100%를 한국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동력산업, 지역 클러스터 발전 전략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 및 로드맵을 연내에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전 대학가 앞다퉈 지적재산권 확보

산·학 협력과 학교기업의 증가 등으로 대전지역 대학들의 지적재산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는 2002년 78건에 불과하던 지적재산권이 2003년 2백6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04년 3백28건, 올해 6월까지 3백39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고 해외 출원 27건, 실용신안 26건, 컴퓨터 프로그램 1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밭대도 2002년 5건의 특허가 출원된데 이어 2004년 8건, 올해 6월까지 13건 등 최근 3년간 26건(특허 24건, 실용신안 2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한남대는 최근 5년간 55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한남, HNU, 인돈, 한남 국제특허법률사무

소' 등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이 많았다. 이밖에도 목원대 19건, 대전대 6건 등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 IT, 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특허가 출원됐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은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커진 데다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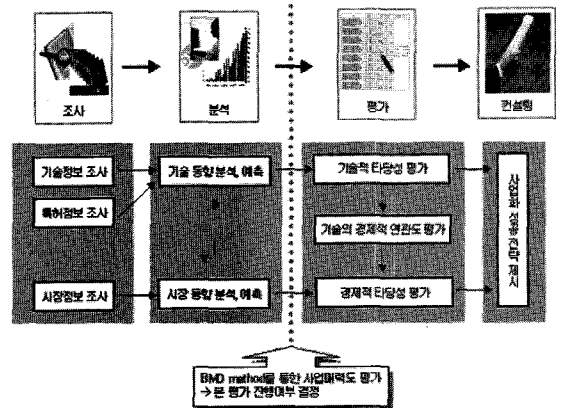
# 장수하는 건강법 5가지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노후 생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장수 건강 5계명'을 발표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실천해 보자.

1. 매사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갖자!  
매일 15초 웃을 때마다 이틀을 더 산다. 밝은 생각과 웃음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쉽게 비판하는 노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2. 지적 활동을 통한 뇌기능을 유지하라!  
크로스퍼즐을 매일 풀어보는 것도 좋고, 자주 걷은 것도 두뇌 자극에 효과가 있다.
3.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전신 건강 다져라!  
근육량이 줄면 체력 저하만이 아니라 심장 등 장기 기능에도 악영향을 준다.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운동, 수영 등이 적당하다.
4.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이 건강의 기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자주 먹고, 생선이나 살코기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을 우선적으로 섭취한다.
5. 정기검진으로 병을 관리하라!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응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병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 튀는 아이디어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특특 튀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사전 종합 진단·평가해주는 사업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선진)은 2005년도 2차 '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60개 과제 평가를 목표로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은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고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청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종업원 1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가 평가주관 기관이 되어 평가를 실시하며, 산업재산을 출원·등록하지 않은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평가진행과정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종업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